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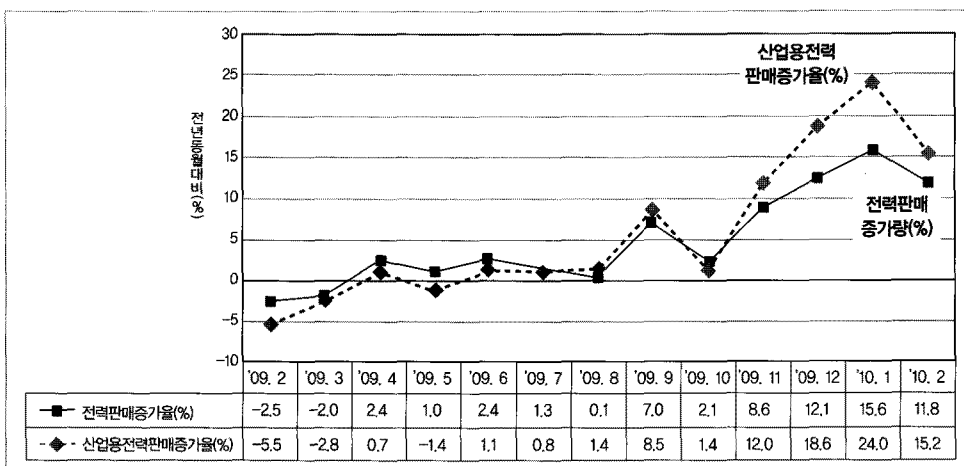
# 10. 2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4개월째 두 자리수 증가율 유지

- 전체 전기수요도 11.8% 증가율 보여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(02-2110-5543)

- 3. 16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2월 전체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1.8% 증가한 372.2억kWh로 나타나, '09. 12월 12.1% 증가율 이후 연속 3개월 두자리 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- 특히,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5.2% 증가한 177.65억kWh(전체 전력판매량의 48%)로 '09. 11월 12.0% 증가율 이후 연속 4개월째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

〈전체 및 산업용 전력판매량 증가율〉



\* 산업용 전력 : 광업,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전력

- 주요업종별 전력사용량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 보임
  - 특히, 기계장비, 자동차, 조립금속업종은 20% 이상 증가를 기록하였으며, 철강, 석유정제, 반도체, 섬유 등 업종도 두자리수 증가
  - \* 전력사용량 증감율(%) : (기계장비)32.0, (자동차)30.8, (조립금속)25.8, (철강) 18.5, (석유정제)17.2, (반도체)16.7, (섬유)10.9, (화학제품)7.4, (펄프종이)4.3, (조선) 2.5
  - 산업용 전력판매량의 증가 요인은 설연휴 이동('09. 1월→'10. 2월)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(Δ1.5일)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의 감소세(Δ5.5%)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세(31.0%) 지속 등 경기회복 추세에 기인

- 산업용 이외의 교육, 주택 등 용도별 전력판매량은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증가세를 기록
  - ◎ 교육용은 전년동월대비 25.5%, 주택용 5.1%, 일반용 11.6% 각각 증가하였으며, 등유 등 다른 난방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력은 전년동월대비 2.6% 증가하였음.
    - \* 5대 도시 월 평균기온 : ('09. 2월) 4.7℃ → ('10. 2월) 2.9℃(Δ1.8℃)
    - (전력수요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서울, 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의 기중평균기온)

- 한전과 발전사업자간 거래가격인 계통한계가격(SMP)은 LNG·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가격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5.2% 하락
  - \* SMP(System Marginal Price) :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
- 한전과 발전사업자간 거래가격인 계통한계가격(SMP)은 LNG·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가격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5.2% 하락
  - \* SMP(System Marginal Price) :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
  - \* 열량단가(원/Gcal) 변동

	'10. 2월	'09. 2월	증감율
LNG(원/Gcal)	57,389	92,801	Δ38.2%
유연탄(원/Gcal)	17,677	25,337	Δ30.2%

- ◎ 2월중 최대전력수요는 6,715.8 만kW('10. 2. 3일 11:00)로서 경기회복세 및 평균기온 하락으로 인하여 전년동월 대비 12.2% 증가
- ◎ 전력공급능력은 7,301.3 만kW로서 전년동월대비 6.3% 증가하였으며, 공급예비율은 8.7%를 유지하였음

# 에너지절약으로 지구를 지켜라!

- 어린이 · 청소년 에너지절약 실천 · 체험 동아리

SESE(Save Energy, Save Earth)나라 참여자 모집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(02-2110-4875)

- 지식경제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· 청소년들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습관을 키우고 지구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인 “SESE\*나라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힘
  - \* SESE : Save Energy, Save Earth
  - SESE나라는 가정과 학교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생산 · 소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찾는 자율적 모임임
    - 주민단체,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관련 봉사활동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게 됨
  
- SESE나라 모임을 만들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면 에너지절약 실천 · 체험정보를 담은 SESE나라 프로그램과 온라인 활동공간, SESE나라 신분증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
  - SESE나라로 등록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국가공인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인정하며,
    - \* 향후, SESE나라 개별활동을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인정하고, 지도자로 참여한 성인(24세이하)도 사회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여 취업 시 도움이 되도록 추진
    - 대학 진학 시 입학 사정자료로 반영하여 참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대학 입학사정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
  - 지역별 SESE나라 정상회담, 그림그리기 대회, 경연대회 등을 통해 SESE나라 간 우수사례가 공유 ·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,
    - 활동 우수 SESE나라는 지경부 · 교육부 장관상 수여와 함께 방학 중 국내 및 해외 에너지절약 체험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짐
    - 향후, UNESCO 등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활동 우수 SESE나라의 국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임
  - 또한, SESE나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놀이동산, 극장 등 청소년 선호 장소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임
  
- SESE나라는 3.18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4월말에 신청된 SESE나라 구성원들이 모여 “SESE나라, 에너지절약으로 지구를 지켜라!”를 기치로 발대식을 가질 계획임

◎ SESE나라는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·청소년(8~16세) 10명 이상이 모여 SESE나라 홈페이지 (<http://www.sese.or.kr>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어린이·청소년 외에 성인 지도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함

- 향후, 「에너지절약 전문교원」 인증제도 도입\*을 추진하는 등 미래 녹색강국 실현을 위해 실천·체험 중심의 에너지 절약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교사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
\* 교사 교육과정,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 ('10. 4~8월)

## “스마트그리드가 현실로 다가온다.”

### - 스마트그리드 업계, G20 이전 홍보체험관 열기로-

문의 |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(02-2110-4875)

-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스마트그리드 업계와 주요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그간의 업계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업계 주요 인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개최

#### ◆ 오찬간담회 개요

- ▶ **목적** : 스마트그리드 업계와 주요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그간의 업계 노력을 격려
- ▶ **안건** : ① G20 기간 중 Korea Smart Grid Week 행사계획  
② 제주 실증단지 홍보체험관 청사진  
③ 한-일리노이주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프로그램 진행경과 보고
- ▶ **일시·장소** : '10. 3. 26(금) 12:00~13:20, 르네상스호텔 루비홀
- ▶ **참석** : (정부) 장관님, 제주도 부지사, 에너지산업국장, 녹색위 단장  
(민간) 스마트그리드협회장, 기업대표(한전·SK텔레콤·GS칼텍스 사장 등), 유관기관장(SG사업단장·KOTRA 사장 등) 20명
-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 G20 기간 중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서의 국가위상 강화, ② 제주 실증단지 홍보체험관 구축, ③ 한-일리노이주 스마트그리드 공동 프로젝트가 현안으로 논의됨

- G20 행사 :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그리드가 우리나라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녹색성장 핵심분야인 점을 감안, G20 기간을 “Korea Smart Grid Week”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국제홍보를 전개하기로 함

〈Smart Grid Week 행사계획〉

순서	행사명	행사목적	집중홍보대상
1	MEF 스마트그리드 워킹그룹 회의	글로벌 리더십 제고	해외 공무원·고급 연구원
2	세계 실증단지 운영자 컨퍼런스	전문성 함양 및 아젠다 주도	실무기업인력·실무 연구원
3	전시부스 및 바이어 상담공간 운영	수출교두보 마련	해외 바이어
4	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개관식	스마트그리드분야 우리의 기술력 입증	해외지명인사, 해외고위공무원

- 홍보체험관 : 한편 스마트그리드 홍보체험관 조기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의 활력을 충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기에 형성하기로 함

〈홍보체험관 개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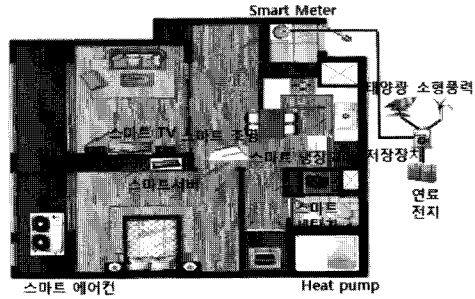
순서	홍보체험관 종류	홍보기능	개관일	규모
1	종합 홍보체험관 (1개소)	스마트그리드 및 실증단지 개념 이해, 실증단지 운영센터 체험	10월	300명
2	컨소시엄별 체험관 (5개소)	컨소시엄별 비즈니스모델 체험, 바이어 상담	9월	총 60~220명
3	임시 홍보체험관 (1개소)	종합 홍보관 구축전 임시홍보거점	4월	30명

〈종합 및 컨소시엄별 홍보체험관 투어코스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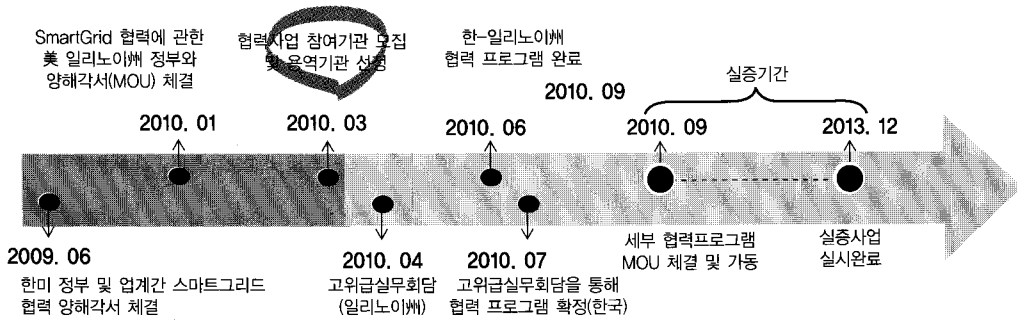
- 특히 컨소시엄 홍보체험관의 경우, 컨소시엄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시제품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개성 있게 꾸며질 계획임

〈LG전자 컨소시엄 홍보체험관 : 스마트가전 1박 2일 체험기회 제공〉



- **일리노이 협력** : 아울러 한전 · SKT · GS칼텍스 등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카고 노후빌딩 녹색화사업, 전기차 충전소 구축 분야부터 일리노이주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함
- ◎ 특히 제주 실증단지에서 설계 중인 비즈니스 모델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업체가 힘을 모으기로 함

〈한-일리노이주 협력 추진일정〉



- 이날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근거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 정비와 스마트계량기 구입 보조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
- ◎ 최경환 장관은 연내에 지능형전력망촉진법(가칭)을 제정하여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급

#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

-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,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,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유도 등 추진
-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을 10%P 높일 경우 연간 3,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

문의 |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(02-2110-4875)

- 지식경제부는 3. 5일(금) 설치비 보조금 지급,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유도 등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(첨부)을 발표하였음
  - 우선, 신규예산(50억)으로 금년부터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최대 15%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
    - \* 보조금 사업 주관기관은 가스공사로, 보조금 신청은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
  - 또한, 가스냉방투자의 용자지원을 확대\*하여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,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\*\*하여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임
    - \* (지원대상) 실외기 → + 실내기 · 배관, (지원비율) 설치비의 80% → 100%
    - \*\*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인하시 소비자요금 10%이상 하락예상
  - 한편, 가스공사와 기기업체가 협력하여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,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정, 가스냉방기기 검사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
  - 추가로, 가스냉방 선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신 · 증축시 가스냉방 설치를 확대하고,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대상 확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 ·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
  - 가스냉방 신규설치가 금년에 약 17% 증가(전년대비)할 것으로 예상되고,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
    - \* 가스냉방 신규설치 : '09년 8.5만 RT → '10년 10만 RT(예상)
-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(冬高夏底)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고,
  - 가스냉방기기 보급은 시스템에어컨(EHP)을 대체하여 최근의 겨울철 난방용 전력피크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   - \*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%P 높일 경우, 매년 약 3,000억의 효과 기대(LNG발전소 건설 5기, LNG저장탱크 건설 3.5기 감소)
  -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이 약 12.4%에 불과(일본은 22.6%)하였는데, 이는 전기냉방보다 설치 · 운영비가 높고,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였기 때문임
- 한편, 지식경제부는 3. 5일 10시 aT센터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을 업계 및 소비자에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, 이날 행사에서 가스공사와 기기 생산업체(LS엠트론, 신성엔지니어링)간 효율개선 협력 MOU 체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
  - 동 MOU는 국산냉방기기의 효율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여, 향후 국산 초고효율 가스냉방 기기개발의 추석이 될 것으로 전망